

제38회 정기총회 성대히 개최



제38회 대종회 정기총회가 지난 3월 11일(금) 오전 11시에 거례의 큰 성공이시며 우리 안동김씨의 자랑스러운 어른이신 백범김구선생의 얼을 기리는 백범기념관에서 전국 각지에서 300여 종친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회순에 따라 사무총장의 성원보고에 이어 태인회장의 개회선언과 南應(提)이사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선조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린 다음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사시 및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가문을 빛낸 종친들에게 축하패를 수여하였다. 이어서 名年(提) 감사로부터 2004년도 회계결산

보고가 있었고 200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2005년도 사업계획안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임원선출에 들어가 태인회장후임에 弘植(按)현종을 제20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태인회장은 신임회장에 계 종기를 전수하고 弘植(按)현종은 태인회장에 공로패를 수여한 뒤 전임회장의 임사와 신임회장의 취임사가 있었다. 그리고 영환감사(文·재임6년)의 후임에 泰煜(提)현종을 선출하였다. 기타 토의시간에 들어가 容辰(재철·按)종친의 충렬공의 봉작군호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종회를 마쳤다.

전국 각지에서 300여 종친 참석

就任辭



존경하는 전국 종친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또한, 전국 각지 먼 곳에서 참석해주신 종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안동김씨 38회 정기총회를 축하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사단법인 신라문화보존회 김수길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불초한 제가 안동김씨 38회 정기총회에서 20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영광이기에 앞서 책임과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다만 역대 회장님들의 훌륭한 업적을 거울삼아 우리 종중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국 종친 여러분! 종친회의 발전은 회장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60만 전

종인이 한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고 단결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일 때는 열심히 노력 하지만 헤어지면 비판으로 만족감을 갖는 경우는 없지 않으나 제스스로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오늘 대종회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和合하는 종친회를 지향하겠습니다. 우리 안동김씨는 훌륭한 할아버님의 후예로 선조님들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이어오고 있는 家門으로 서의 자긍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和合하는 종친회를 하루 속히 이루어 전국 어느 곳을 가든 만나면 반갑고, 즐거움을 주고, 받는 종친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和合의 종친회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미풍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합의 종친회는 종친 여러분들의 화합과 단결만이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先進文化의 종친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안동김씨는 명문가로서 先祖님들의 훌륭한 업과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文化遺産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왔습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後世들에게 이를 가르치고 傳하기 위해서는 종친회의 선진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겠습니까. 특히, 오늘날 선진문화의 발달로 전 세계가 지구촌 한가족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門中의 훌륭한 문화유산과 얼을 계승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컴퓨터時代입니다. 초등학생은 물론 어른세대까지도 컴퓨터文化에 익숙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친회의 컴퓨터 전산망을 정밀하게 구축하여 國內外의 종친 모두가 종친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조상님들의 훌륭한 업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全國의 종친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히 취임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家內에 평화가 깃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 3. 11
안동김씨 대종회
회장 김홍식

"2004年度 門中을 빛낸 분들"

(공로패)

· 김태인 (按) 21대손, 現 대종회 명예회장

(축하패)

- 김동원 (典) 16대손 공학박사
- 김태주 (按) 21대손 사시합격
- 노해경 (書) 22대손, 대호의 처 문학박사
- 김희국 (都) 21대손, 철학박사
- 김경희 (翼) 20대손, 경영학박사
- 김문영 (書) 공학박사

"종회 축이 되기를 주신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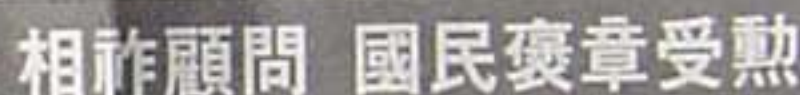
- 재인 청주 중·고 총동문회장 김태영
- 안동김씨 제학공파 송남병천 백전종무 소장 김상기
- 대우증권(주) 상무 이연우
- 안동김씨 안렴사공파 병천 광기종친회 향전원에 대표 김재균
- 신라문화보존회 이사장 김수길
- 씨채널인경 대표이사 김재한
- 전국시군구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 김기성
- 인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한도섭
- 대우자동차판매(주) 대표이사 이동호
- 경진교통 주식회사
- 안동김씨 인천종친회원 일동

인적사항

- 성명: 김홍식 (金弘植)
- 본적: 충남 천안시 병천면 도원리 378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1동 70-125
- 생년월일: 1934년 8월 20일

이력사항

- 1953년 청주고등학교 졸업
- 1956년 청주대학교 법학과 2년 휴학
- 1959년 육군 훈련소 부관부 제대
- 1961년 경찰대학교 졸업
- 1963년 주한미군범죄 수사대 근무
- 1966년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1971년 대통령 근정훈장 포상
- 1988년 경기 경찰청 퇴임
- 1988년 경진교통주식회사 및 경진운수 합자회사 대표이사 회장
- 1991년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원
- 1996년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원 동창회장
- 1996년 청주고등학교 동창회장
- 2002년 안동김씨 인천 종친회장



弘植會長 안렴사공 고유제 봉행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유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고유제에는 영목(提)회장 南應(提)이사 태영(翼)이사 창규(提)종친을 비롯하여 많은 안렴사공후손들이 참석하였다.

고유제를 마치고 인근에 위치한 松泉서원에도 들러 참배하였다. 松泉서원은 안렴사공(휘 사람)선조께서 主壁으로 배향된 곳이다. 참배를 마치고 재균(按)이사가 운영하



는 "산마가든"에서 참석종친들과 담소를 하며 중식을 들었고 귀경길에 올랐다.

지난 3월15일, 신임 홍식회장은 충북 청원군 오창면 모정리에 위치한 안렴사공묘소에서 인근종친 약

판서공 (휘 愼) 時祭奉行



지난 4월 24일(음 3월16일) 전남 강진군 작천면 토마리에서 충렬공의 장자이신 판서공(휘 愼), 대제학공(휘 承用), 평리공(휘 厚), 군사공(휘 七陽)四位의 時祭가 160여명의 종친이 參與한 가운데 盛大히 奉行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문은공과 광우회장, 영운부회장, 영국, 이사진 및 안

사연 6명과 밀직사사공과, 개성윤공과, 군사공과, 전서공과, 부사공과의 여러종친분들이, 특히 대구종친회에서는 부부동반으로 45명, 청주종친회에서는 부부동반으로 35명이 참석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이날 헌관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판서공(휘 愼)
 - 초헌관 병돈(개)
 - 아헌관 광우회장(문)
 - 종헌관 재은(부)
- 대제학공(휘 承用)
 - 초헌관 영웅(밀) 회장
 - 아헌관 홍수(군) 광탄문중회장
 - 종헌관 영석(군) 김제문중
- 평리공(휘 厚)
 - 초헌관 창희(군)
 - 아헌관 진중(익) · 대구종친회
 - 종헌관 익(도) · 대구종친회
- 군사공(휘 七陽)
 - 초헌관 수인(군) 회장
 - 아헌관 승남(군)
 - 종헌관 태웅(군)

西原 金容大
古邑永嘉遺蹟豐 綠田山麓高齋瓏
征倭大事都元帥 救國靖難忠烈公
再拜焚香追慕教 三杯獻酌淡心悵
宜途盡力吾門祖 青史無雙萬世功

雪荃 任準臣
夢裏祥雲生子豐 呱呱聲大金門瓏
羅時上係王孫問 麗代華官宰相公
危亂重任常凱樂 征倭高責歸慷慨
昆仍誠懇崇齋室 今日京儒讚特功

安一堂 李元熙
鯤域江山名所豐 福州祿轉齋宮瓏
羅王後裔金門長 麗代忠臣元帥公
渡海征倭猶有快 由風歸路何無悵
雲仍今日歡迎裏 一生京儒讚大功

三友堂 張善淑
古邑永嘉傳說豐 綠田幽谷金門瓏
羅時真骨玉域礎 麗代將軍忠烈公
雲霧夢中誠母訓 遠高陣上還元悵
再行東伐雖無實 惟一嗚呼痛快功

中觀 崔權興
山水秀靈人傑豐 永嘉寶貴金門瓏
羅時王裔中興祖 麗末元勳上洛公
理亂重任誠盡力 征倭大事惜歸悵
至今世故如當日 尚教一謀俾舊功

澹州 金榮基
當到永嘉古跡豐 將軍神道元勳瓏
簪纓顯貴名門祖 危命投身忠烈公
蔭德繁孫猶讓逸 爲先微力恒香悵
接賓厚禮期餘慶 代代兼成文武功

又仁 慶佑秀
我大震方名姓豐 三韓甲族金門瓏
福州陽地將軍廟 麗代忠臣高爵公
內治有勲人德果 外征無實天時悵
達尊三得真稀事 仍夢既成賢母功

한가락회 출판기념회



2005년 4월 30일(토), 한가락회에서는 국방부 민원실식당에서 내외 귀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한가락회는 고려 역사인물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동김씨에서는 윤대(익)종친이 참여하고 있다. 한가락회는 2004년 12월 5일 충렬공묘소를 참배하고 음수재에서 1시간여에 걸친 학술토론회를 갖고 충렬공 할아버님을 추모하는 詩朗誦이 있었다. 이날 한가락회 출판기념 행사에는 우리 안동김씨 대종회에서 命會副會長의 축사가 있었다. 그외에 容大, 命會, 泰燾감사, 전부회장聖會, 관북사무총장이 참석했다.

惕若齋文溫公 諱九容先祖 宗宅 發屈



지난 2005년 2월, 포천시에서는 4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소장박경식 박사)에 의뢰하여 발굴조사한 "포천안동김씨 종가 집터 발굴 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종가집터의 규모는 318

평의 면적에 솟을대문을 구비하고 안채, 사랑채, 행랑채로 구성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에 안동김씨 별서(別墅)로 세워진 후 후대에 종가집으로 사용되어왔지않나 추정된다고 보고되었다.

원래문온공 과종택은 송도(개성) 서재동에 있던 건물을 조선 세종조때 직제학을 지낸 문온공의 장손자 김맹현(盟獻)공이 명례방(明禮坊)으로 옮겨지었고,

임진왜란 당시까지 살았던 곳으로 보아 포천의 집은 별서로 이용되었다가 후대에 와서 낙향한후 종가로 사용되었으리라 짐작된다. 명례방을 답사한 안사연회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명례방의 종택이 있던 자리는 현재 읍지로2가와 청계천2가 부근으로 확인된 바 있다.

조사단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현재 종가집으로 알려진 가옥은 여러곳에 존재하고 있지만 한강 이북지역에서 발굴한 유적으로는 유일한 것이며, 비록건물은 6.25전쟁으로 불타 없어졌지만 초석을 비롯한 유구가 정교하게 잔존해 있어 조선 후기 양반가옥의 전형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적으로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또한 이 종가 집터가 있는 곳은 기암절경이 어우러지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구비하고 있어 포천시와 안동김씨문중에서는 이곳을 정비하여 전통문화와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역사공원으로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영환(文) 제공)

제학공파 비안공문중회의 4위 선조님 묘비 제막식 거행



제학공파의 비안공문중회의(諱 仁甲 후손문중, 92년 발족)에서는 문중 숙원사업인 영상공(諱 錫) 이하 3위 선조님들의 묘비 및 석물 건립 제막식을 지난 4월 24일 충북 괴산군 괴산을 능촌리와 수진리 묘역에서 약 70여 명의 후손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영상공후손 및 괴산 능촌종중의 후원으로 실시된 이날 행사는 4위 각 묘전에서 묘비 제막, 고유제 봉행, 경과보고, 선조님 소개, 회장기념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차應 현 문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들은 선조님들의 빛나는 애국 애족정신과 훌륭한 업적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물론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절대적으로 큰 시기'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멀리 천안의 병천종중에서 90회 생일을 맞이하신 장규종친 外 5분이, 대구도령의공파의 정중종친, 서울 군사공파의 발용종친 등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묘비 글씨는 지난 해 춘무공 김시민장군 유허비의書者로서 공개토완 서체 보유자로 명성이 높은 泰國(정의공파) 종친에서 세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書者인 태국종친과 비안공 문중회 사무국장이며 3위 묘비문의 諱·撰者인 함용종친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각각 수여하였다. 각 묘역의 묘비 및 석물 건립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영상공(諱 錫) 묘역 : 묘비,망주석 보수, 능촌 종중 성금 건립.
- 2.비안공(諱 仁甲) 묘역 : 묘비,암마석,장명등 건립, 비안공문중회 건립. 碑文後記-泰燾, 碑文謹撰-恒鎭, 謹書-泰國
- 3.암덕공(諱 時說) 묘역 : 묘비,문관석 건립, 宗孫 泰燾 단독 건립. 碑文追記-泰燾, 謹撰-恒鎭, 謹書-泰國
- 4.안주공(諱 繁) 묘역 : 묘비건립,사초, 後孫 相錫 단독 건립. 碑文追記-相錫, 謹撰-恒鎭, 謹書-泰國

*행사일 성금자 : 제학공파 병천종중(회장相祺)-5만원, 철수(提,文肅公 諱 倬甲後孫)-3만원

(기사 제공자 : 恒鎭(提))

안렴사공파 종회 총회

지난 2월 25일(금), 안렴사공파종회에서 음내신 협감당에서 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였다. 會順에 의하여 2004년도 결산·감사보고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이어서 임원선출에 들어가 在澤회

장의 후임으로 按廉使公 17代孫인 榮萬賢宗을 추대하였다.

신임 영만회장은 현재 진천군 종친회장도 맡고 있으며 향교, 성균관유도회에도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임원선출에는 회장단, 이사진이 전원교

체되었다. 이는 많은 종친들의 참여와 종회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개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기타 토의 시간에는 容辰(在哲)宗親의 1時間余에 걸친 門中史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총회를 마쳤다.

"대구종친회 제25회 정기총회"

지난 5월 22일(日) 대구종친회에서는 시내 황실관광호텔에서 종친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회순에 따라 내빈소개와 대종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이어서 유공종친에게 대종회장으로 부터 표창패수여가 있었다. 다음으로 2004년도 결산감사보고와 2005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임원선출에 들어갔다.

鳳秀회장의 후임에 實敬(익,泰)賢宗을 제13代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實敬회장은 다년간 종사에 참여하였고 현재는 (주)국일전공대표이사로서 중견기

업인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종회 홍식회장, 인천종친회 춘교회장, 태국감사흥국(典), 풍록(典), 관록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표창패를 받은 종친
在文(익) 대구종친회 7대 회장
棟(도) 청장년회 12대 회장



"우암김주문집 출판기념회 열려"



지난 2월 27일(日) 11시에 여주종합터미널 2층 봉황부에서 조선중기의 문장가 우암김주선생의 詩文 등을 모은 「우암집」을 국역한 「국역우암김주문집」출판기념회가 여주문화원과 안동김씨안렴사공파 문단공종회 공동주관으로 18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대종회 태인회장을 비롯하여 안사연회원, 전 대종회부회장 성희 종친과 문단공후손 및 많은 안동김씨후손들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 행사에는 여주지역 향토사학계 인사 여러분이 참석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文端公(寓庵花山君, 諱金澍)(1512년~1563년)은 조선중기 8대문장의 한 분으로 文章과 經學에 출중하였다. 28세에 이조좌랑을 거쳐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한 뒤 이조정

랑, 부교리, 부승지, 좌승지, 도승지가 되었고, 대사간, 대사헌, 대사성이 되었다. 52세(명종 18, 1563년)에 조선왕조의 명예회복을 위한 進賢使로 중국에 가서 임무를 마치고 그곳에서 물하였다. 27년후(선조 23, 1590년)에 光國功臣花山君에 追封되었고 다시 200년후(정조 14, 1790년)에 文端의 諡號를 받았다.

「우암선생유고」는 최초 7책으로 만들어졌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때 유실되었고, 1789년(정조, 3년)에 문단공 6대손 휘래(稜)와 증질인 공의 7대손 휘得顯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글들을 모아 7권 1책으로 「우암선생유집」초간본을 발간하였다.

「국역우암김주문집」이 세상에

나오게 됨으로써 선조님의 삶과 정서, 격높은 학문과 사상 등을 올바르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집을 후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려대 한문학과 심경호교수에게 역주를 의뢰하여 2년여에 걸친 국역작업과 편집을 거쳐 간행하게 된 것이다. 이 국역작업에는 많은 애로가 있었으나 안사연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로 순조롭게 마무리 하게 되었다.

(화산군 종회제공)



動 靜

서운관정공파 관호종친 신학사학위

에 기여한 공로로 나성삼 현 대종회고문이며 서울 육대학으로부터 신학사학위를 받았다. 관호종친은 대방동교회 노인반목사로 재임중이다.



관호종친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교회사업과 신학발전에

相國賢宗 傘壽宴



이신 相國宗親님의 傘壽

지난 3월 28일 소피텔 엠버서더호텔에서 개성운공파와 회장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친지 및 종친 다수가 참석하여 相國宗親님의 壽福康寧을 기원하였다. 슬하에 一男을 두시었다. 宗親任의 家庭에 萬福과 幸運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昌植賢宗 回婚 祝賀宴



개성운공파 昌植宗친의 결혼60주년 回婚式이 있

었다. 昌植宗친은 광복전 대학을 졸업하고 近年에는 장뇌삼을 연구하여 학위를 領得한 엘리트종친 이시다. 슬하에 四男 二女를 두시었다. 昌植宗親님의 永遠한 祝福을 기원합니다.

알림 : '제사는 이렇게 지낸다'

김명희·송재훈·조영돈 공동집필



대종회 會務 부회장은 금번 '제사는 이렇게 지낸다' (喪禮와 祭禮)를 출간했다. 본 서적은 우리 민족의 중요

한 의식으로 삼아왔던 喪禮와 祭禮는 8,15 光復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급격히 파괴되고 허례허식만 만연하게 되자 이를 안타까이 생각하던 차 진천송씨 대종회 부회장 겸 총무이사인 송재훈님, 한양조씨 부회장님, 조영돈님 등 3인이 공동 집필한 것이다. '제사는 이렇게 지낸다'의 喪禮와 祭禮에 대한 이번 교재는 명희 부회장이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 제례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한편 점차 무너지고 있는 예의와 도덕심을 고취하고자 출간한 것으로 판매 수익금은 전액 대종회에 기부키로 했다.

권당 10,000원 편집부

韓國唯一의 族譜出版 綜合工場



本社 社屋 全景

族譜 出版의 元祖 족보 문집

回想社 特徵

1. 創立 50年 歷史와 全國族譜 90%以上 出版 實績을 자랑하는 族譜 出版界의 元祖
2. 春田體(族譜書體) 47,163字 製造 開發로 모든 僻字 完全解決(回想社 獨自 版權)
3. CD 族譜 製作 (既 發刊된 族譜도 CD 族譜 製作)
4. 인터넷 族譜 構築, 홈페이지 製作
5. 編輯, 淨書, 組版, 印刷, 製冊, 頒發 등 모든 工程을 同一工場에서 一貫作業을 할 수 있는 綜合工場.

便宜 提供

1. 門中에 收單, 淨書, 編輯, 校正 등 場所를 本社 및 서울支社에서 無料로 提供
2. 族譜 刊行中 疑問點, 回想文譜院(族譜圖書館)을 利用, 隨問하여 解決
3. 印刷된 用紙, 謄寫 管理, 넓은 工場과 1,000餘坪 以上の 倉庫로 頒發完了 때 까지 無料로 便宜提供.



族譜古書 出版製冊

回想社

본사: 大田廣城市 東區 中洞 47-4
電話 (042) 253-9881 / 3 Fax (042) 253-9891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50번지
강변 한신코아 오피스텔 1412호
전화 (02) 718-9881 Fax (02) 718-9882

<04 편람집> 발간식 및 홈페이지 운영평가회 실시



대종회에서는 지난 2월 19일, 강남구 소재 한 음식점(대한민국)에서 문중 역사연구와 홈페이지 운영에 관심이 많은 종친 약 17명이 모여 <04편람집 발간식 및 홈페이지 운영평가회>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매년 초에 실시하고 있는데 <편람집>은 안.사.연(안동김씨 사이버학술 연구회)에서 전년 1년간 우리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등재된 자료 중 학술적 가치와 보관 가치가 높은 것들만 발췌하여 편집·제작한 것인데 금년의 <04편람집>은 제 4호가 된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약 50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으로 인해 인쇄물 제작은 중단하고 CD만 제작하여 대종회에 영구보관토록 하고 일부 전문연구가들에게 배부하였다.

아울러 홈페이지 운영평가회는 관리자인 함용종친의 자체 분석과 평가가 있는 뒤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이날 그동안 우리 홈페이지에 방대한 문중 역사 자료를 게시해 오다가 중국으로 장기 출장을 떠나게 된 주희(안)종친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1. 홈페이지 현황 (04.12.31.기준)-자료수록면, 내용면, 구성면, 접속자수, 게시물수, 연중무휴 게시물 등재기록 등에서 문중사이트 가운데 국내 최대의 홈페이지로 평가 받고 있음
*총용량:880메가 *보유도메인:7개 *접속자총수:239,462명(1일 약210명)
*게시판 게시물총수:7,962개(1일 약 6.3개)



2. 홈페이지 활성화 토의내용-접속자 수 증가와 홍보 방안, 홈페이지 전체 구조 개편 방안, 직거래 장터 운영 및 광고 방 운영 방안, 전자책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방안

기사 제공자: 恒鍾(提)

<대종회장님과 만남의 날> 행사 실시



안.사.연(안동김씨 사이버 학술 연구회)에서는 지난 5월 20일(금)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시 구로구 구로역 인근의 한 음식점(명동 보리밥)에서 안.사.연 및 홈페이지에 관심이 많은 종친 여러분 약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신임 대종회장님과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신임 회장님과 인사소개에 이어 원로 연구가이신 용진(보명在哲,안)님의 고별 학술발표회, 안사연과 홈페이지 소개,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협의회, 유연재공(휘希壽)의 친필인 성희안 신도비 탁본 감상회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대종회장님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홈페이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국내 문중사이트 중 최고에 이른 것에 대한 찬사 말씀에 이어 문중역사 연구와 각종의 탐사활동에 눈부신 업적을 쌓아 나가는 안사연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함께 앞으로 대종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 자리에서 83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문중역사 연구에 헌신하신 재철종친님께 대종회에서는 감사패를, 안사연

에서는 기념품(청려장)을 증정하였다. 특히 이날 멀리 김해에서 오신 소설작가 김영희님으로부터 제작중인 <허난설헌> 소설의 집필 방향에 대한 해설도 들었는데, 허난설헌은 서문관정공(휘 綬)의 8대손이신 저작공(著作公-휘 誠立)의 배위분으로서 일찍이 한국여류시인으로 명성 높았던 분이시다.

이날 재철 종친님께서 발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葛林始祖 金關習의 官職名인 大輔公과 太輔公에 대하여
2. 忠烈公 金方慶의 墓碑文 및 神道碑文 改正의 必要性에 대하여
3. 敬順王 以下 忠烈公 사이의 世系代數에 대하여
4. 安東金氏 貫祖(휘 叔承) 지정에 대한 의문점 제기
5. 安東金氏에서 分貫된 姓氏 중 大譜에 登載되지 않은 姓氏

*자세한 발표 내용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재되어 있음.

<기사제공 恒鍾(提)>

안사연의 유연재공(諱 希壽) 친필 신도비 탁본대회



안사연에서는 지난 5월 1일, 자체 운영 계획에 따라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의 성희안 묘역에서 우리 문중의 대표적 서예가이신 유연재공의 친필 유적 신도비문 탁본대회를 가졌다. 5월의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온갖 꽃들이 앞 다투어 피는 계절을 택해 탁본을 실시하게 된 이 신도비는 유연재공의 필적이 남아 있는 금석문 중 가장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이었다.

최초 발음(군)종친의 힘겨운 사전 발굴작업과 안내

에 힘입어 제작하게 된 이 탁본은 앞으로 우리 대종회 서고에 영구 보관토록 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와 유연재공의 간략 소개는 다음과 같다.

*참석자(무순):상석(제), 은희(익), 발동(군), 태우(군), 함용(제), 김형순(전문연구인)

*김희수(金希壽)-1475(성종6)~1527(중종22). 자는 용정(夢靜), 호는 유연재(悠然齋), 서문관정공(휘 綬)의 玄孫으로 할아버지는 감사 휘 자행(自行)이

며, 아버지는 휘 숙연(叔演)이다. 1507년(중종2)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한 뒤 정자·박사·지평(持平)·검상·도승지·경상감사 등을 거쳐 1527년 동지중추부사가 되었다. 묘소는 현재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산81번지 관곡산에 있다. 특히 해서(楷書)에 능하였는데 글씨 유적으로는 <계주문(戒酒文)>·<영상 김수동비(領相金壽童碑)>·<영상 성희안비(領相成希顔碑)> 등이 있다.



大宗會長님과

만남의 날



안.사.연의 함벽루(涵碧樓) 창건자 문숙공(諱永暉) 고증 및 탐방대회



안.사.연(안동김씨 사이버 학술회)에서는 자체 계획에 의거하여 지난 4월 9-10일(1박 2일) 경남 합천군 합천면 합천리의 함벽루 누각에서 <함벽루 창건자 문숙공(諱永暉) 고증 및 탐방대회>를 가졌다. 4월 10일 오전 9시 경, 9명의 안.사.연 회원과 현지 합천의 향토사학자 여러분들은 함벽루에서 만나 그동안 모든 문헌에 <함벽루는 1321년(충숙왕 8) 합주지주사 김모가 창건하였으며-->라고 기록되어 있던 누각 창건자명을 <文肅公 金永暉> 선조님으로 분명히 확정짓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이 고증행사는 맨 처음 潤萬(문)종친께서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문영공 묘지명>에서 찾아내어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후, 안사연 여러분께서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및 자

료 조사를 하던 중, 지방 신문인 합천신문에서 누각 창건자에 대한 추론내용을 연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고증자료를 전달함으로써 동 신문을 통해 이 사실을 널리 알리게 되면서 구체화 되었던 것이다.

이 날 안사연에서는 준비해 간 고증자료를 배부하고 해설 및 토론을 하였

으며, <涵碧樓 創建者 文肅公 金永暉 考證 記念>이라고 새긴 기념타일을 배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를 기념하는 즉흥시 낭송도 있었으며, 앞으로 함벽루 해설판과 각종의 공식 문서에 누각 창건자로 문숙공을 명기하거나 수정하는 활동에 양 단체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참석자는 아래와 같다.

*참석자 명단(무순) : 함묵(부), 상석(제), 윤만(문), 발용(군), 태우(군), 태영(군), 함용(제), 전문연구인(2), 박환태님(합천신문 사장), 이호석님(합천 문화원부원장), 변용규님 등

*행사 전 내용 기록처 : 안 동 김 씨 홈 페이지 (<http://andongkim.net/>)의 <안동김씨 소개>란-<역사적주요인물>란-<김영돈>란 참조.

기사 제공자 : 恒黼(提)



典書公派譜 發刊 告由祭

지난 5월 9일 典書公派宗會에서는 宗親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보발간 출판 기념회를 갖고 연기군 전동면 미곡리 典書公諱成牧先祖묘소에서 告由祭를 奉行하였다.

告由祭를 마치고 根成會長은 人事말을 통해 종회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하고 종친화합과 송조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것을 당부하고 파보 발간에 수고해주신 종친께

감사하다는 말로 인사말을 마쳤다. 이날 고유제에는 대종회 홍식회장, 인천종친회 순교회장, 태극감사, 명회부회장, 관북사무총장등이 참석했다.

"원회종친 발칸어과 조교수로"



원 회 (익)종친은 한국 외국어대학교 노 어 과 를 졸업하고

국비장학생으로 불가리아 소피아대학에서 언어학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 외국어 대학 언어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중 금년 3월 1일자로 한국외국어 대학교 서유럽대학 그리스발칸

어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원회종친은 익원공파 전함공 후손인 재택종친의 장남이다.

仁川종친회 제29회 정기총회



인천종친회는 지난 4월 16일(토) 시내 신원대부

에서 종친 및 내외 귀빈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9회 정기총회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회순에 따라 유공 종친에게 패를 증정하고 이어서 수입, 지출, 결산 감사보고와 회칙개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임원선출에 들어가 제 12대 회장이 春敎(典)현종을 선출하였다. 春敎신임회장은 仁川종친회뿐 아니라 고양 지역종친회를 조직하여 활성화하고, 특

히 인천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당시 찬회(현 대종회고문) 시장으로 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있다. 이날 행사에는 대종회 홍식회장 근성회장(典), 명회부회장, 관북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회의를 마치고 여흥시간에는 시품 화기에애한 가운데 장기자랑 등 푸짐한 선물과 기념품을 받았다.

패를 받은 유공 종친
축하패 - 홍식회장
공로패 -
사원(부) 11대회장
수왕(익), 재훈(부)



청주종친회 제58회 정기총회

청주종친회는 지난 3월 27일 시내 "거구장"에서 종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8회 정기총회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회순에 따라 2004년도 수입 지출에 대한 감사보고와 2004년도 사업결과 보고를 마치고 2004년도 결산승인, 2005년도 예산승인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2005년도에는 종중행사로 현조묘소 및 사적순례, 종중 정보수집 및 종원간 교양교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체제준비, 기타 종중 발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총회를 마쳤다. 청주종친회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연합 종친회이다.

※ 향 전 원 에 ※

(경조화환/화분)

대표 김재균

전화 : 783-3166, 783-3167, 780-8477
팩스 : 780-8478, 자택 : 552-5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프린스텔 1층 12호)